

감나라 배나라 따지지 말라 했지만...

포교원, 한가위 앞서 상제례 안내서 발간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충)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불교 상제례 안내>를 편찬했다. 포교원은 그동안 재가신도들에게 불교식 상제례 절차와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08년 불교상제례문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 상제례에 대한 연구 조사에 착수해 왔다.

이번 <불교 상제례 안내>는 그간 불교상제례문화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친 연구회의와 세미나, 시연회를 통해 정리한 2010년 임종예례 지침서인 <남은 웃을 갈아입고>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책이다.

고명석 선임연구원은 “남의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런 의례상의 과정 및 49재와 제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포교원 포교연구실 고명석 선임연구원은 “이번 <불교 상제례 안내>는 그간 잘 못 알려진 상제례 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상제례에 대한 절차와 의미를 중점에 두고 제작했다”고 말했다.

책은 민간예례를 감안해 불교식이나 전통에 맞지 않는 의례 내용에 대해 잘라 낸 점을 짚어주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로, 상복으로 검은색 한복을 입거나 영정사진에 두르는 검은 띠 등은 의미와 근기가 명확하지 않아 불자들은 상복으로 법복을 갖춰 입고 영정사진에 검은 띠를 두르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조문하는 법, 조상 영가에 게 절하는 법, 부의와 답조하는 법, 제사지내는 법, 위패 쓰는 법, 제사상 차리는 법 등을 비롯해 Q&A 코너를 만들어 평소 불교 상제례에 관한 사소한 의문점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명석 선임연구원은 “남의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런 의례상의 과정 및 49재와 제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은 “지침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안내서’이다. 책을 참고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포교원은 이번 <불교 상제례 안내>발간을 기점으로 스님이 집례하는 상제례 의례절차와 내용은 종단 의례위원회의 통과를 거쳐 법요집으로 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재가자들이 스스로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하나의 신행운동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한편, 포교원은 불교상제례례 한글과 연구를 진행해 의례구조를 밝히고 제방의 의의를 구하는 연찬회를 9월 7일 학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은정 기자

7대 종교 한마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운데) 등 7대종교 지도자들이 8월 27일 5·18광주항쟁민주공원을 찾아 묵념하고 있다.

한국의 7대 종교지도자들이 광주 원 불교 교정원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최근덕 성균관

대표지도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민주화 운동의 성지 광주에서 회동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종교 화합에 마음을 모았다.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KK 총무 김영주 목사, 김주

원 원불교 교정원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최근덕 성균관

대표지도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민주화 운동의 성지 광주에서 회동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종교 화합에 마음을 모았다.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KK 총무 김영주 목사, 김주

원 원불교 교정원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최근덕 성균관

대표지도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민주화 운동의 성지 광주에서 회동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종교 화합에 마음을 모았다.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KK 총무 김영주 목사, 김주

템플스테이 사찰 관리 엄격해 진다

앞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월 2회 이상 템플스테이를 개최해야 한다. 또, 예·결산보고서를 매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사찰 자격이 해지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은 9월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운영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템플스테이 사찰지정및운영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118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가운데 79곳이 참가했다. 지현 스님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대한 관리감독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책임과 지원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임

태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사업단은 매년 운영실무자들이 참가하는 아카데미를 개설·운영토록 규정했다.

특히 국가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키 위해 “2억원 이상의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찰이 지원받은 지 7년 이내에 운영평가에 따라 해지가 결정되거나 자진 해지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문화사업단에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동섭·이은은 기자

“어청수는 아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불교계 반발

불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청수 前 경찰청장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8월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입 이사장에 어청수 前 경찰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어 이사장은 공공조직 경영과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한 경험이 많다. 국립공원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어청수 신임 이사장은 경찰청장 재임 당시 불교계의 지탄을 받으며, 범불교대회와 원인을 제정한 문제를 불거지게 했다. 이어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차를 타고 과잉 검문해 불교계와 현 정권이 불편한 관계가 되는데 일조했다.

때문에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사찰을 비롯한 민간 소유의 상당한 토지들이 국립공

원이 지정돼 있는 만큼 공단 이사장은 이해 관계자와의 조정과 화합 능력도 갖춰야 한다”며 어청수 前 경찰청장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불교환경연대도 12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성과 자질이 결여된 인물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청수 前 경찰청장의 이사장 임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또 한 번의 보은인사, 회전문인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9월 1일 “전직 경찰총수에 국립공원 관리를 맡기는 이상한 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어청수 前 경찰청장은 불교계와 불협화음의 갈등을 이어갈 소지가 다분한 인물로 맡은바 소임에 대단히 부적절한 인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어청수 前 경찰청장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고, 이 자리에서 “종단이 양해해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넨 바 있다.

조동섭 기자



조계사, 어린이 전용 법당 첫 삽

조계사(주지 토진)가 어린이 전용 법당 착공식을 8월 31일 조계사 경내에서 가졌다. 어린이법당은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 지하에 마련된다. 토진 스님은 “이 곳에서 제대로 된 어린이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박기범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운산 스님과 절대 협의한 적 없다”

봉원사 일운 스님 반박

태고종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종단부채와 관련한 해명(본지 제 851호 보도)에 대해 신촌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이 반박했다.

일운 스님은 “사실과 다른 운산 스님의 발언으로 자신이 종도들에게 오해 받고 있다”며 “운산 스님과는 일체 논의한 바가 없다”고 8월 30일 밝혔다.

일운 스님은 “봉원사 연지원은

로 대출된 15억원이 봉원사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다”며 “운산 스님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운산 스님 측 관계자는 “15억원은 신경순 대표가 이미 자기가 갚을 것이라는 확인서를 써 준 내용이다. 채권을 확보한 것을 현 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알림 본지 제850호의 강우방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석굴암 관련 원고 가운데, 글의 취지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인 명예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실명으로 거론된 점은 본지의 편집의도와 관련 없이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관련한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2011(辛卯年)

(慶) 國際禪文化交流 及 慧能禪文化節 (祝)

금번 한국 육조선원에서는 중국 광둥 육조사와 공동 주최로 태국, 월남,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대만, 미국 등 8개국이 함께하는 육조혜능 대사의 선(禪)사상을 기리는 선 문화 교류 및 육조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원은 금번 갖게 되는 국제 선 문화 축제를 통해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며 누구에게나 친숙할 수 있는 선불교의 청정한 선풍이 이 땅에 불어와 혼탁한 사회 현실을 청정케 하고 갈등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중생들에게 청량한 감로수가 되길 간절히 서원하며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는바입니다.

2011년 9월 일

- 공동 대 회 장 (승가) 석연화. (재가) 담화 이종영
- 공동 봉행위원장 (승가) 석지암. (재가) 김덕환
- 대회 추진 위원장 (승가) 공 산. (재가) 최익화
- 대회 조직위원장 자 운. (재가)
- 사 무 총 장 소 운 사 무 국 장 이원주
- 부 대 회 장 (승가) 법봉, 종섭, 도선, 법장, 건우 (재가) 표상우, 이내철, 한대희
- 봉행위 부위원장 혜문, 금봉, 경천, 법원, 지원, 선담 (재가) 지정환, 황병권, 원종만

- 집 행 위 원 보광 (재가) 한대희
- 조 직 국 장 법원 (재가) 흥 보 국 장 심은경
- 사 서 실 장 월암 (재가) 대구 새정수회 조준현
- 봉 행 위 원 혜봉, 청산, 정진, 무영, 혜양, 오성, 도관, 청운, 선호, 자은, 묘진, 혜천, 청암, 지원, 자인, 능현, 자문, 종니, 지광, 혜원, 봉정, 선담, 약산, 원각, 수인, 법민, 은곡, 고봉, 혜명, 혜암, 혜일, 혜광, 관연, 자명, 법련, 법성, 청화, 관연, 자명, 법련, 법성, 청화, 성각, 원덕, 무량, 연제, 법안

주 회 : 한국 육조선원, 세계 선문화, 육조선 교류연맹, 주 관 : 국제 선문화 교류 및 혜능 선 문화절 봉행 위원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KBS, 불교 TV방송국, I.B.S 중앙방송국, 108.TV 연합불교 방송국, 현대불교신문, 중국 선문화 주간, 월간 세계 불교,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 한국 불교 종정 협의회, 법원청, 한국 불교 종단 총 연합 진흥회, 자유 총 연맹 종교 특별 위원회, 전국 의용소방 연합회, 월남 참전 세계 평화 유지군 동지회, 세계 예술 교류 협회, 세계 불교 지도자 연맹, 지구환경 보존운동본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국민운동 본부, 새 정수회, 나라사랑 국민운동 사회체육 진흥회, 독도 수호 국민 연합, 한국 도교 협회, 16개 불교 종단 및 신행 단체

일 시 : 법요식 - 2011년 9월 26일 오전 9시 (행사기간 9월 25 ~ 28일 4일간)
장 소 : 경북 구미시 박정희 체육관 (경북 구미시 광평동 산 50번지)
연락처 : 02)766-6800, 033)766-2556, F:033)766-2557, 02)744-6300, 011-285-6800, 010-4813-6800, 010-3151-2556.